

시론



조영서
계수초등학교 교사

“선생님, 저 이거 맞았어요?”문제를 풀고 는 나에게 물어보는 아이의 눈빛에는 ‘잘했 어요’라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 교실에서 칭찬은 가장 자연스러운 격려의 언 어이자 배움의 기쁨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하지만 요즘 나는 그 칭찬 뒤에 한 문장을 덧붙이려 한다. “정말 잘했어. 풀면서 어떤 점이 제일 어려웠니?” 결과의 기쁨에 멈추지 않 고, 다음 단계의 성장을 바라보게 하는 질문 이다.

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잘하는 아이’를 만 드는 것이 아니다. 칭찬받는 순간보다 성장하는 과정이 더 중요한 교실, 그 속에서 아이들은 배우는 즐거움을 깨닫는다. 그렇다고 칭찬이 안 좋 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칭찬은 성장의 출발점이다. 칭찬이 끝이 아니라, 성장을 여는 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로서 나는 칭찬의 힘을 종종 경험한다. 하루 종 일 노력한 뒤 “오늘 ○○이가 정말 집중했 구나” 한마디에 아이의 어깨가 쭉 펴지는 모습을 보곤 한다. 그 짧은 문장은 아이에 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낼 수 있는 사

칭찬과 함께 성장을 말하는 교실

람이다.’라는 믿음과 자존감을 심어 준다. 그러나 단순한 칭찬에 머물면 아이는 결과 만 바라보게 된다. “잘했어” 이후에 “어떻 게 그렇게 생각했니?”를 묻는 순간, 칭찬은 평가가 아니라 성찰로 이어지는 대화가 되 는 것이다. 요즘 교실에서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피드백 활동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우리 반 아이들도 수업 시간에 패들렛과 보 드에 올린 글에 친구들이 댓글로 피드백을 남긴다. 수정할 부분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존중하고 공감하며 피드백을 해 준다. 예를 들어 “네 문장엔 너만의 표현이 살아 있구나.”와 같은 댓글들 말이다. 단순 한 칭찬이나 결과의 완벽함보다 과정의 의 미를 인정하는 칭찬, 이러한 것들이 아이 들을 성장으로 이끈다. 이처럼 디지털 포 트폴리오에 쌓인 과제와 교사의 코멘트, 그리고 친구들의 응원과 조언은 시간이 지 나며 아이 스스로의 성장 궤적을 그려준 다. 그 기록을 다시 본 아이들은 “내가 이 만큼 달라졌구나.”라는 자각을 하게 되고, 그 자각이 다음 배움의 동기가 된다. 칭찬 과 성장의 언어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 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다. 또 한 번은 수 업 시간 중 한 학생이 발표하다 말을 더듬 으며 멈칫했다. 교실이 잠시 조용해졌지 만, 나는 말했다. “조금 긴장했지만, 끝까 지 생각을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 용기가 참 멋지다.” 그 순간 아이의 표정이 달라지더니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씩 발표

를 위해 노력해 나갔다. 그 아이를 바라보 는 반 친구들도 지난 시간의 경험 때문인 지 그 누구도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친구의 발표를 격려하고 따뜻한 눈빛을 보 내주었다. 칭찬이 ‘결과’가 아닌 ‘태도’를 향한 때, 아이들은 스스로를 성장의 주체 로 세우는 것이다. 이처럼 교실에서는 다양한 수업 활동과 방법으로 칭찬과 성장이 서로 함께한다. 칭 찬이 동기를 주고, 성장이 방향을 제시한다. 결과를 인정하는 칭찬은 아이에게 자신감 을 주고, 과정을 짚는 피드백은 아이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교실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된 다. OECD가 제시한 미래핵심역량 역시 자 기주도성, 회복탄력성, 협업 능력 등 비인 지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역량은 점수나 등수로 길러지지 않는다. 아이들이 스스로 “나는 배우고 있다”라는 감각을 느낄 때 자 라난다. 교사는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는 사람이 다. 때로는 “잘했어”라고 격려하고, 때로는 “다음엔 이렇게 해보자”라고 조언한다. 칭 찬은 순간의 박수이고, 성장은 긴 여정이다. 돌 줄 어느 하나로는 온전한 교육이 완 성되지 않는다. 아이의 변화와 노력을 함께 보는 일, 그 속에서 칭찬과 성장은 한 줄의 문장으로 이어진다. “정말 잘했어.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보자.” 결국 교육은 칭찬으로 시작해 성장으로 완성되는 길인 것이다.

기고



김영선
전남연구원장

정부가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 도시 특별법’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전남 의 에너지 전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지역 지원이 아니라 국가 산업 지도의 방향 전환을 상징한다. 기업의 RE 100 수요를 충족시키고 재생에너지 활용 을 극대화하려는 정책 의지는 전남의 오랜 에너지 전환 구상과 정확히 맞닿아 있 다. 전남은 에너지산업의 중심지에서 미래 기술의 선도 지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려 한다. 나주 일원에 추진 중인 인공태양 연 구시설 유치는 그 변화의 상징적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2030년대 초 완공을 목표로 한 이 시설은 초전도체와 플라즈마 실험 인 프라를 갖춘 대규모 과학기술 기반시설로써 탄소중립 시대의 전력 체계를 근본적으 로 바꾸는 기술을 다룬다. 이 기술은 전력 뿐만 아니라, 의료,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한 국을 대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에도 직접 활용될 수 있을 만큼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 다. 전남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전력산업 클러 스티를 형성하고 있다. 한전 본사 및 계열 사는 물론, 전력기자체 생산기업 수백여곳

나주에서 떠오르는 인공태양, 에너지 미래 비추다

이 이미 에너지밸리, 나주 혁신산단 등에 서 활동하며, 송변전·배전, 스마트그리드·ESS(에너지저장장치)·전력반도체 등 첨 단 전력기술 실증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 다. 산업적 경쟁력만이 아니다. 나주지역에 소재한 한국에너지공대와 동신대는 과학 기술 분야,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풍부한 전문 인력과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고 학부 수준은 물론, 석박사급 인력도 양성하고 있 다. 인공태양과 같은 첨단 분야 연구 개발 을 이끌 만반의 준비가 돼 있는 것이다. 이 미 유치가 확정된 AI 데이터·컴퓨팅센터와 연결해 에너지와 AI의 결합도 기대할 수 있다. 인공태양 연구는 순간적으로 대규모 전 력을 투입해야 하는 시설로서 안정적 전 력 공급망과 안전 관리 체계가 필수다. 한 전 본사와 초고압 송전 인프라가 인접한 나주는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 내 유일의 입지다. 이런 나주에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들어선다면 전남은 에너지산 업과 연구·실증을 한 공간에서 해결하고 AI까지 접목할 수 있는 전국에서 유일무 이한 에너지 혁신 생태계를 갖추게 될 것이 다. 새 정부 출범 후 균형발전 정책 측면에서 5급 3특 체제가 공식화됐고, 부산에는 해양 수산부가 이전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 타내고 있다. 그러나 전남에서는 지역민의 많은 기대를 모았던 기후에너지부 유치가 무산돼 실망감이 결코 적지 않다. 특히 전남 이 기후변화의 최전선이자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의 핵심 지역임에도 아직까지 에너지 와 관련된 대형 국가 연구시설이 없다는 점 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재조명 돼야 할 부분이다. 5급 3특 체제에 부합하는 초광역 연구 거점으로서 인공태양 연구시 설은 그런 차원에서조차 나주에 자리잡아야 한다. 전남은 문재인 정부 때 차세대 방사광가 속기 입지 선정에서 한번 고배를 마신 적 이 있다. 그래서 지금 지역 주민들의 인공 태양 연구시설 유치에 대한 열망은 그 어 는 때보다 높다. 이에 전남도는 ‘에너지 미 래도시 기획전략본부’를 신설해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에 발맞춰 정책 실행 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 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병행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전남의 노력에 부합하 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공유지 임 대료 인하, 설비투자 정책금융 지원 등 경제적 지원책과 더불어 신도시급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특례 조항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 어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나주로 자리잡 는다면 전남은 ‘대한민국 에너지수도’를 넘어 글로벌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연구 개발과 혁신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할 것 이다. 에너지 대전환의 미래는 더 이상 먼 이야 기나 선언이 아니다. 전남이 그 무대의 중심 에서 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전남 유치 를 통해 5급 3특 균형발전정책이 완성되길 기 대한다.

독자투고

최근 장흥 지역에서 공공기관이나 병원을 사칭한 ‘노쇼 사기’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되 고 있다. 이 수법은 음식점이나 소규모 업체에 전화 를 걸어 단체 예약 손님인 척 접근한 뒤 “급 한 사정이 있어 대신 물품을 구입해 달라. 나 중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속여 돈 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사기범들은 위조 명함, 공문서, 신분증 등 을 제시해 신뢰를 얻은 뒤 피해업체가 유명 업체로부터 물건을 주문하게 하고 결제를 유 도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는 업 체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송금하게

서민경제질서 파괴 범죄 ‘노쇼 사기’ 예방하자

된다. 이들은 관공서·군부대·교도소·종합병원 등의 관계자를 사칭하며 방문복, 무전기, 식 재료, 고급 와인 등을 대리구매 명목으로 주 문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장흥에서도 교도소 납품 담당자를 사 칭한 범죄가 발생해, 방검복과 식재료, 무전 기 구입대금 등 약 8천만원의 피해가 보고됐 다. 장흥경찰은 토요시장상인회, 소상공인연 합회 등과 함께 예방 홍보전단을 배포하고 1:

1방문 안내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피해는 여 전히 계속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상의 인물이 물품 납품 을 이유로 특정 업체에 대신 주문·결제를 요 구한다면 즉시 의심해야 한다”며 “전화 주문 시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고 예약 금 제도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라”고 당부했 다. 또 “피해가 의심되면 지체 없이 경찰(11 2)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 했다. <한상현·장흥경찰서 읍내지구대>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説

16년만에 무죄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부녀의 눈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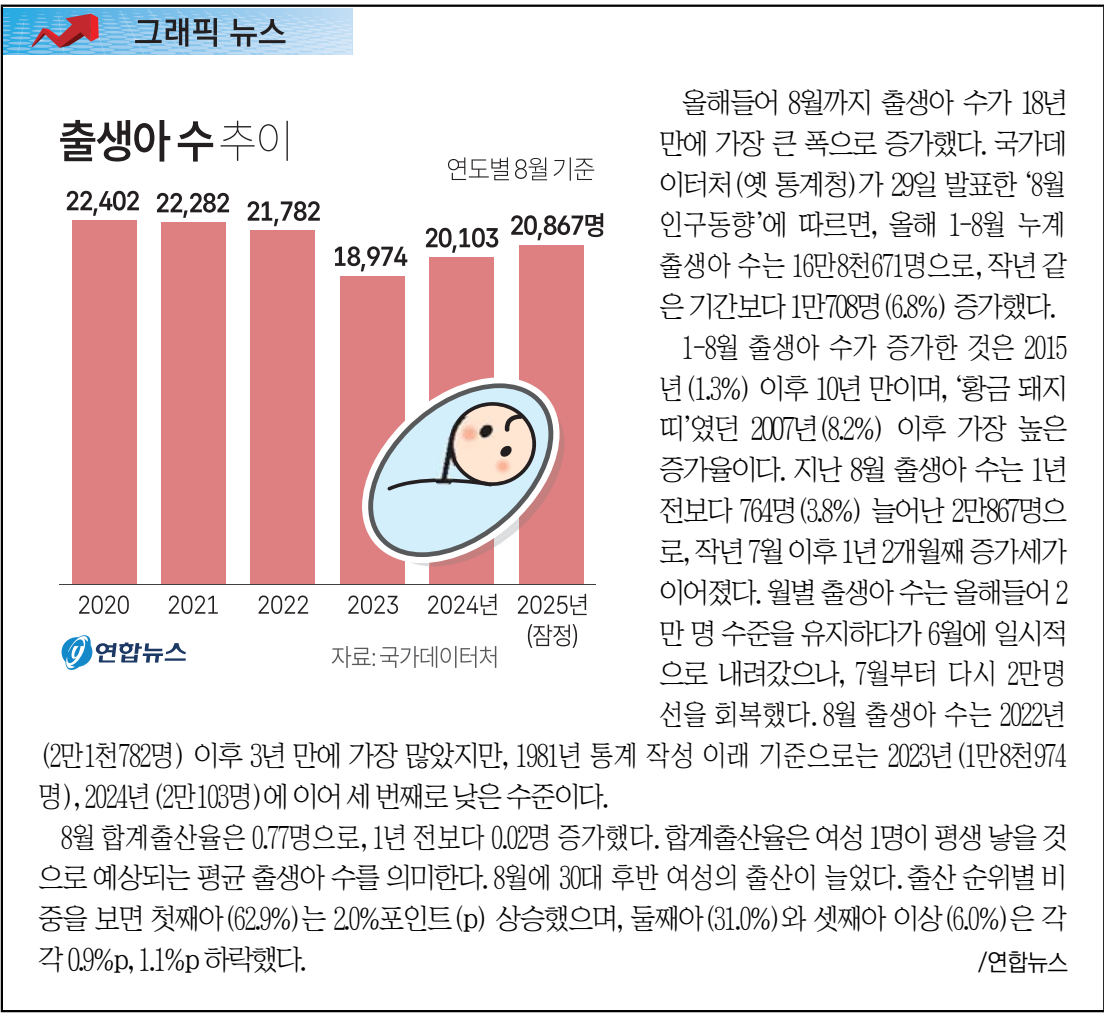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으로 옥살이한 백점선씨와 그의 딸이 16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 죄를 선고받고 통탄의 눈물을 흘렸다. 사건은 20 00년 7월6일로 거슬러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일어났다. 독극물이 든 막걸리를 나눠 마신 주민 4명 가 운데 2명이 죽고 2명이 다친 이번 사건은 직접적 인 목격자가 없어 경찰 단계에서 용의자를 특정 하지 못하고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 측은 사망한 피해자 중 한 명이 아내이자 친모로, ‘성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 문맹 또는 경 계성 지능인인 부녀의 자백을 바탕으로 기소했 다. 1심 판단은 살인 등의 혐의에 중징이 부족하 다며 무죄, 반면에 2심은 진술의 신빙성을 근거 로 유죄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2심에 문제 가 없다고 보면서 2012년 각각 무기징역과 20년 의 중형이 확정됐다. 또 한번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것은 10년 뒤인 2022년 위법·강압 수사 및 수권 남용을 주장하 며 재심을 청구하면서다. 특히 유도 심문 정황이 드러나 증거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법 원은 2024년 1월 재심 개시와 형 집행 정지를 결

정했으며, 2심부터 재판이 재개됐다. 검찰이 증 인으로 출석해 정당한 수사를 강변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전형적인 그릇된 수사였다”. 변론을 맡은 박 준영 변호사는 소회를 밝혔다. 그는 “끔찍한 범 행 동기를 만들어 꾸였고, 은폐했다”며 “실적에 눈이 먼 공권력이 약자의 인권을 외면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재심 판결에는 존 속살해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24년 만 에 누명을 벗은 김신혜씨, ‘낙동강 살인사건’ 장 동익씨, ‘화성 연쇄살인 사건’ 윤성여씨 등이 함 께 자리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이들이 무죄를 축하하는 의미로 펼친 현수막 문구다. 공정전 절 차에 따라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기본권을 최 대한 보장하는 등 필요하다면 제도를 더 보완해 야 하는 것이다. 패륜 살인자라는 낙인으로 15년 을 감옥에서 보냈다. 백씨는 “헛된 피해자가 생 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혹사라도 유사 사례가 있다면 적극 구제하는 등 자정 노력이 요 구되고 있다. 위법 부당하다면 즉각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다. 당국의 성찰을 촉구한다.

타당성 인정받은 광주교육청 청사 이전 탄력 기대

광주시교육청 청사 전환배치(이전) 사업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 탄력을 받게 됐다. 신청사는 광산구 신장동 소재 시교육 청시민협치진흥원의 3만1천38㎡ 부지에 지하1 층, 지상 6층으로 신축된다. 사업비는 1천288억 원으로 교육부 교부금 308억원, 자체 재원 980억 원을 투입한다. 2026-2027년 설계공모 및 실시설 계를 거쳐 2028년 착공, 2030년 준공·이전을 예정 하고 있다. 10년 이상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온 숙원 이다. 광주 교육공동체의 간절한 염원이다.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현재의 청사는 1988년 준공 이 후 37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기도 했다. 특히 520명으로 인력과 조직이 크게 확대되며 사무 공간이 협소해 업무 환경 개선 요구가 높았지만 막대한 자원 마련에 발목이 잡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번엔 중앙투 자심사위 의결이 의미있는 성과로 받아들여지 는 것이다. 교육부는 청사 이전의 타당성을 공식 인정했 다. 그러면서도 역시나 예산 효율화 방안, 도시 관리계획 결정 등을 추가 부대의견으로 제시했

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 심사에서 재검토 통보 이유인 사업 규모, 사업비를 현실화하고, 주차 장 확충 등 핵심 사항을 보완했다.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분석 결 과를 토대로 선정된 신청사는 그 규모가 2배 가 까이여 이른다. 주민설명회를 계기로 적극적 이 해를 얻고, 추진 동력을 얻었다. 시교육청은 연 차별, 단계별 추진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 재정 상황과 행정 절차를 종합 고려해 속도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전력해야 하는 것이다. 돌봄·독서· 예술·교직원 지원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용도로 활용될 화정동 청사의 재편에도 허점이 없어야 한다. 단순한 행정 건물이어야 아니라, 미래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해야 한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구성원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 앞으로 또 폭넓 은 의견 수렴으로 더욱 최적화된 형태로 만들어 야 할 것이다. 향후 사업 일정에 박차를 가할 때 가됐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마케팅본부 경영지원국 사업본부 업무국	650-2099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650-2011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기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